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10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여성 53%·남성 47%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년 전 10가구 중 한 가구꼴(15.8%)이던 1인 가구는 지난해 30.4%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일자리·복지정책 발굴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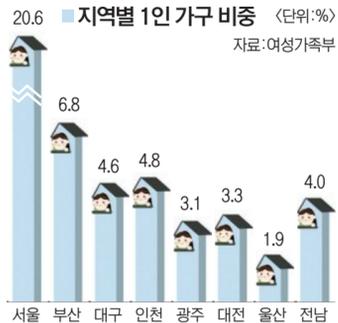
여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조사가 이뤄진 2010년(15.8%), 2015년(21.3%)보다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가족에 대한 사고의 틀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혼독신'이라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20대의 비율은 53.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이혼·재혼(54.0%)과 결혼 후 무자녀 생활(52.5%)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게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 997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족여가 및 참여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1인가구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1인 가구는 여성(53.0%)이 남성(47.0%)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인가구 중 경기지역 비율이 21.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0.6%였다. 광주는 전국 1인 가구의 3.1%, 전남은 4.0%로 조사됐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이 40.2%로 가장 많았고 사별(30.1%), 이혼 또는 별거(22.3%)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는 않



는 유배우 1인 가구는 7.4%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평균 9년 11개월을 혼자 살았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라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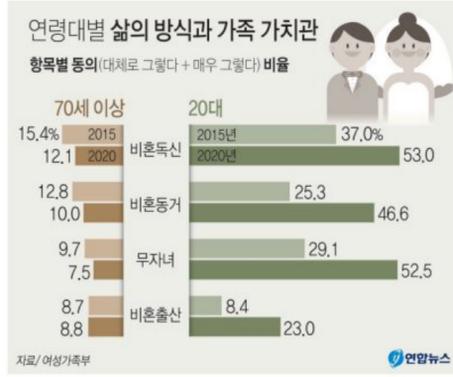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10명 중 7가구(72.1%)는 '혼자 살 것'이라고 답했다. 60대(86.9%), 70세 이상(86.8%), 50대(73.0%) 등 높은 연령층에서 '혼자 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고 40대(61.3%), 20대(55.2%)도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1인 가구의 소득은 50만~100만원 미만(2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100만원대(25.0%), 200만원대(18.8%), 300만원대(10.3%) 등의 순이었다. 이 때문인지 '향후에도 혼자 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35.4%는 '향후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35.4%)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34.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연령층은 50대(50.9%)가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주거비(35.7%), 식비(30.7%), 의료비(22.7%) 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53.0%), 40대(49.4%), 20대(43.2%) 등의 주거비 지출 부담이 높았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 중 가장 우선 순위에도 1인 가구의 절반인 50.1%가 '주택 안정 지원'을 꼽아 돌봄 서비스 지원(13.4%), 건강 증진 지원(9.7%) 등을 앞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초록 안에서 심포 휴일인 30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교 인근 둔치를 찾은 가족단위 행락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6월 수능 모의평가, 선택과목 결정 마지막 기회

졸업생 등 합류 3일 시행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6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수능 체제에 맞춰 시행된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난 3~4월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이 합류하는 까닭에 수험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분석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인데, 9월 1일 실시되는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성적은 9월 말에 나오기 때문이다. 문과와 이과가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는 수학이 큰 변수로 떠올랐다. 입시업체들은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보다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3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93.4%, 4월에는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문과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

이올리 3월과 4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2~7점 높았다.

임성호 중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같은 점수를 받고도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지속된다면,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경사났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5명 합격

조선대학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대인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제도다. 학과성적(상위 10% 이내) 등이 우수해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2021년 조선대학교 합격자는 행정 분야 4명, 기술 분야 1명이다. 합격자는 모두 졸업생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114개 대학 640명이 지원해 16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1년 간 부처 수습근무 뒤 임용 여부 심사를 통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조선대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명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한옥 붕괴사고' 인허가 규정 안지켰다

광주 동구,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전달받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광주일보 4월 5일 6면)는 건축법 등 인허가 규정 미준수로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난 주에 전달받았다.

조사위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리모델링 과정내 서류상의 인허가 과정부터 현장 검증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는 기동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로 자치구에 인허가를 얻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허가기관에 신고 후 착공해야 하지만 이를 준

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다.

또 기동과 보 하부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동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성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됐다.

동구는 조사위로부터 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을 더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